

노인의 노동(labor) : 이기적인 생존의 강요와 지배 질서의 안정과 고착

(2024. 6. 3)

이경주 (선배시민협회 회원)

‘삶은 돈 드는 일의 연속’, 노인과 비노인, 자본주의 속 개인의 삶을 이처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 노동이 ‘돈’ 버는 일이라 할 때, 그리고 삶이 生으로 비롯되어 死로 가는 과정일 때, 삶의 막바지로 가는 노인의 돈벌이는 죽기 위한 것으로 은유 된다. 비유하여 보니 현실이 보다 또렷해진다.

노인으로서 잘 죽기 위해서는 ‘잘’에 비례하는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돈이 있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천지 차이이며, 노인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잘 죽지 못할 게 뻔한 삶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굶주림은 숨이 멎는 고통이 아닌 숨을 쉬는 고통이기에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노인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은 극단적인 생존의 삶을 실현한다. 즉, 자살한다. 한국 돈 버는 노인들의 상태, 노인취업률,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등의 구체적인 증거들은 널리 알려진 만큼 이 글에서 생략한다.

우리 사회는 왜 노인이 되어도 ‘노동’을 해야만 할까? 이 공론 주제에 대한 답이 위에서 절반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을 노인이 노인에게만 하는 거라면, 노인 스스로 인간의 범주에서 노인을 분할시키고 세대 갈등 프레임을 부추기며 동조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돈벌이와 굶주림의 굴레가 낳는 고통, 자살은 이 세계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들 사이에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니 말이다.

후배 세대에게 비친 베이비부머 노인 세대의 청춘은 억울한 삶이 아닐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주역으로 주목받은 주류라 가리키고, 아울러 부당한 질서를 방관하고 동조했다는 책임을 추궁할지 모르며, 현재를 옹호하는 힘센 세력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만연된 노인 혐오 의식에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가 맞물린 점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공경이 아니라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선 책임감과 성찰이 갖는 입장과 주장을 펴야 하며, 따라서 ‘선배 시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중간한 세대이기도 해 드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았다.

‘한국은 왜 은퇴한 시민과 노동자에게 계속해서 노동을 강요하는가?’ 그런데 비극의 전말은 노인에게 있거나 노인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있는 것이므로 먼저 ‘인간 노동의 의미’와 ‘자본주의 노동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노동은 또 인간의 자연적 조건이다. 인간은 노동력을 사용하며 생산적 노동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변환시킨다. 이에 의해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난 인간이 되고 진보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인간은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목적을 자연물에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동물과는 다르다.

그런데 노동을 통한 생산은 삶의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니다. 생산의 목적은 소비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삶의 목적이라기보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이 소비를 규정하는 삶의 기본 조건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정신적 능력까지 개발한다. 일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들간의 사회적 관계도 형성한다. 노동이 삶의 기본인 만큼, 노동하지 않는 시간 곧 여가는 노동에 의해서 한계가 지워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와 소비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노동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들과 노동은 서로 조건을 지우고 있다. 그렇지만 여가의 의미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휴식뿐만 아니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활동에도 있다.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여가가 목적이 된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노동은 피지배계급의 몫이었다. 여가는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노동과 여가는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와 성격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왔다. 자본주의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

노동에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서였다. 산업사회에서 노동은 명시적으로 찬양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높이거나 신의 뜻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직업을 소명(召命, calling)이라고 불렀다. 노동이 가치창출의 원천이라는 것이 밝혀져 노동을 장려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을 조금이라도 더 시켜 경쟁에서 이겨야만 했다. 나중에는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동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생산과 경제적 부가 인간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생산과 부 그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되었다. 여가만 즐기는 자는 기생층으로 비난받았다. 그 결과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이 생산되고, 인간의 욕망은 계속 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직접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천사와 여가의 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이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맑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그(1997)의 ‘계를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노동의 성격과 노동관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사회가 노동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노동중독은 알코올중독이나 아편중독과 다를 바가 없으나, 기독교가 노동을 신성시하고 부르주아지 실용철학이 이를 정당화하였다. 신성시된 노동은 리바이어던처럼 사회를 옥죄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해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계화등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사회유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다고 보았다. 기독교와 실용철학이 노동자들의 고통스럽고 강제적인 임노동, 즉 현대판 노예제도를 신성시하고 찬양한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라파르그에 의하면 노동은 신성하기는커녕 지옥의 고통이다. 오히려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몸부림이며 문화와 계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상철 2007).”

이상철의 논지에서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 자연적 조건으로써 인간 노동의 원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로 인해 뒤바뀐 인간 노동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본디 인간 노동은 여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의식을 목적물에 실현하며 생산하고 소비를 규정하는 진보적 삶의 영위 수단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노동 신성시와 찬양, 경쟁몰이로 ‘노동’은 지배 질서와 억압의 수단으로 둔갑해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강제적이고 고통스런 ‘임노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여가는 노동재생산을 위해 노동에서 분리되었고, 생산과 소비의 관계 또한 역전되며 노동이 삶의 수단에서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즉, “과거에는 생산과 경제적 부가 인간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생산과 부 그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된 것이다(이상철).” 이와 함께 ‘구상과 실행이 분리’된 자본주의 임노동 구조 역시 노동 비인간화의 주요하고 큰 원인이다.

자본주의 비인간화의 골레 ‘임금 노동’이 우리의 삶을 돈 드는 일의 연속으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A가 빵 공장에서 하루 100개의 빵을 만들어도 빵은 A의 것이 못 된다. 바로 빵을 먹거나 타인과 나누려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된다. A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시장에서 자기가 만든 빵을 상품으로 사 먹는 것뿐이다. A는 비정규직일 때 동일 노동에도 저임금을 받게 되고, 아무리 성실하게 장시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노동하지 않으면 A를 비롯한 피억압자들에게 소득(돈)이 생기지 않으며, 따라서 상품을 소비할 수 없는 비인간화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건강, 노화 등의 문제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더 견잡을 수 없는 비인간화의 상태가 된다—간혹 있는 주민 대상 강의에서 주민들은 이 평범한 사실에 눈이 뜨그래지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각성한다. 그만큼 우리가 자본주의를 당연시하고 순응된 상태를 반증한다—‘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실행’을 하게 되는 피억압자의 노동은 자연히 생산과 부의 욕망에 의미를 몰두하게 되며, 경쟁과 개인화의 규율에 순응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기적인 삶이란 모든 빈곤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그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질서이다. 지금 한국 노인의 삶은 이 질서로 시작되었고 끝나가는 중이다. 게다가 ‘후배 시민’들

이 이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깨우치기란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인다. 시민들이 자본주의를 인식하고 각성할 수 있는 만남과 관계가 필요하다.

늪어감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문제이다. 노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가 강제하는 '노동의 방식'이 문제이다. 강요된 노동과 중독의 노동이 생의 어느 지점에서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 앞에서 묘사한 자본주의 임노동의 비인간적 얼굴은 한국의 표정과 똑같은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자본주의가 모두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 소외'의 문제는 산업적 시민권으로 통제-관리 되어왔다. 아울러 노동 소외가 낳는 소득 결핍의 문제를 실질적 시민권인 '사회권'으로써 예방하고 해결해 왔다. 이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민의 삶은 생존의 문턱을 넘어 인간화의 토대 위에 서게 되고 정치권과 자유권의 발휘로써 개개인의 실존과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고 도모하게 된다.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써 이 같은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를 밝혀주었다. 사회권은 20세기가 이룩한 시민권으로써 오늘날 인간의 삶과 노동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화의 절대적 시민권으로써 자리매김하여 세계 속에 존재한다. 다만 한국에 그 자취가 없을 따름이다.

현재 한국 노인의 노동과 생존의 양상은 사회권이 부재한 현실과 이에 상응하는 지배권력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현상이다. 또 지금 노인이 아닌 자이더라도 이대로면 그리될 그의 미래이다. 또 오늘 노인의 삶에 혐오감이 들며 노인을 폄훼하고 터부시하게 된다는 건 이미 현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식이 잠식당해 순응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또 자신 현재의 삶을 숙명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이자 이대로 무덤까지 이 노동으로 살아가겠다는, 혹은 살아남겠다는 각오이다. 따라서 그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는 이기적인 게임에 중독돼 마취된 존재다. "우리 사회는 왜 노인이 되어도 '노동'을 해야만 할까?" 여러분께 '선배 시민'이 던진 이 질문은 몰라서 한 것도, '답정너'의 투정도 아니다. 답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성찰의 의미이다. 사회권이 없는 세계에선 노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시민이 아닌 존재로서 죽기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다.

노동이 사회권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회는 바뀌기 시작한다. 노동은 시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시민이 사회권을 상상할 때 노동은 인간화되고 따라서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진다. 노년의 삶은 시민의 삶에 달려있고, 노년의 노동이 생존의 'labor'가 아닌 가치를 실현하는 'action'일 때 시민사회는 더욱 성숙할 기회를 얻고 국가공동체는 선순환하기 마련이다.

이 사회권의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 시민은 실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 실로 이 상상이 필요한 때임을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아직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곱씹고 곱씹는다.

상상하는 존재일 때, 노인은 지배 권력에게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노년에 영근 경험과 지혜는 생이 딱 한 번만 맺는 열매와 같다. 노인만이 내어줄 수 있는 사회적 상상의 식량이며 자산이다. 분리된 ‘구상과 실행’, 실행의 생산노동에서 은퇴해 비로소 구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하기에 노년은 상상하기에 딱 좋은 나이이고, 하기에 노인의 ‘노동’이 ‘action’이 돼야만 하며 그 토대가 시민의 권리 사회권으로 보장돼야만 하는 것이다.

노인의 상상에서 우리나라는 ‘power’와 노인이 제시하는 ‘rules’ 앞에 지배권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왜 은퇴한 시민과 노동자에게 계속해서 노동을 강요하는가?’ 하기에 저들은 이 힘의 원천을 뿌리에서부터 말살하려 든다. 인간이 생존에 발목 잡힌 이기적인 노동을 무덤까지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노인(know 人)의 삶을 가로막아 부당한 지배 질서의 안정과 존속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이 저들에게 우리가 노인이 되어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고 저들이 노동을 강제하는 까닭이다.

최근에도 지배권력의 속내는 또 여지없이 드러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예순다섯 살 이상 노인들의 최저 임금을 더 낮추자는 제안을 냈다. (MBC, 2024. 04. 03)”

실현 가능성이 일도 없는 저 논란과 다툼을 야기함으로써 저들은 또다시 노인을 잔여적이고 열등한 인간으로, 쓸모없고 혐오적인 존재의 프레임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 빈민을 타락하고 나태한 인간으로 보는 잔여적 복지 ‘열등 처우의 원칙’을 난데없이 노동시장에 안에다 적용하려 든 저들의 몰상식과 무식을 가히 무어라 형언해야 할지, 처참한 심경일 뿐이다. 그러나 더 복잡한 심경은 망조 든 분탕질, 노략질보다 못한 저들의 행태가 세상에서 제대로 읽혀 지지 않고, 시민들의 손에 의해 차단되지도 않은 채 쉬이 휘발되어 버리고 마는 현실에 있다. 사회권에 무지하고 상상이 부재한 현실이 실과 바늘로 엮여 있다.

결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상상이 거저 주어지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날이면 날마다 깨닫고 있다. ‘사회권 마중 시민—선배시민’, 노인의 상상과 힘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질서, 세상을 꿈꿔 본다. ‘선배시민협회’의 승리, 시민의 승리를 위해 함께 우정을 쌓으며 실천해 나아가자! 끝.